

선발 기회는 왔는데...실력 발휘 전혀 안되는 양현종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이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에인절스 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LA 에인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회 자레드 윌시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한 후 아쉬워하고 있다. 양현종은 1회에도 1점 홈런을 허용해 2회까지 3실점 했다.

텍사스 선발 투수 연이은 부상에 선발 투입 기회 에인절스전 3닝 이닝 동안 7실점...기회 오자 주춤

선발 투수들이 연이은 부상으로 쓰러졌다. 팀에는 약재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에게는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찬스다. 문제는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현종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3¼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포함해 5피안타 3볼넷 2탈삼진 7실점에 그쳤다. 실점은 모두 자책점이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38에서 5.47까지 치솟았다.

호투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했던 양현종에게 더욱 아쉬운 결과다. 텍사스는 투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 고민이 깊다.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가 어깨 수술로 최소 12주 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게 됐다. 베테랑 카일 김슨은 오른 사타구니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구원 투수 헌터 우드도 오른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껴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런 가운데 선발로 투입된 양현종이 호투를 펼친다면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양현종은 이날 1회부터 선두타자 저스틴 엡튼에게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고 출발했다. 2회에는 선두 호세 이글레시아에게 볼넷을 내준 뒤 후속 자레드 윌시에게 우월 2점 홈런을 헌납했다.

3회를 삼자범퇴로 정리하며 안정을 찾는 듯 했던 양현종은 4회 또 실점했

다. 안타와 볼넷으로 물린 무사 1, 2루 윌시 타석에서 폭투로 주자들의 진투를 허용했다.

위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무사 2, 3루에서 윌시와 테일러 워드에게 연속 적시타를 맞았다. 커트 스즈키를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해 어렵게 아웃카운트 하나를 올린 양현종은 브렛 데 제우스와 교체됐다.

데 제우스가 엡튼에 적시타, 오타니 쇼헤이에게 우월 스리런을 얻어 맞아 양현종의 실점은 '7로 불어났다.'

선발 양현종이 무너진 텍사스는 5-11로 완패했다. 양현종은 시즌 2째째를 당했다.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다 올해 미국으로 건너간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개막을 맞았지만, 지난달 말 빅리그로 풀업됐다. 구원 투수로 나와 긴 이닝을 책임지는 롱 릴리프 역할을 주로 맡으며 눈도장을 찍었다.

결국 선발 기회까지 잡았다. 이날 경기 전까지 두 차례 선발로 나와 안

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크리스 우드 워드 텍사스 감독은 지난 21일 양현종을 앞으로 선발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기회가 찾아오자 양현종이 주춤하고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한 경기에 3볼넷 이상씩을 내주며 제구력 불안도를 드러냈다.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지 못하면서 경기도 어렵게 풀려갔다. 7실점은 메이저리그 데뷔 후 한 경기 최다 실점 기록이다.

기다려던 기회는 왔다. 이제 남은 건 양현종의 몫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양현종'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보다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양현종은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공이 맛있게 들어갔다. 공에 힘이 없었으니 정타가 많이 나왔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책했다.

뉴시스

고진영·박인비, US오픈 전초전 매치플레이서 선전 다짐

오늘부터 5일간...4년만에 개최 64명 출전 4인 구성 16개 그룹

고진영(26)과 박인비(33)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플레이어(총상금 150만 달러·우승상금 22만5000달러)'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고진영은 27일(한국시간)부터 5일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릭 골프클럽(파72)에서 LPGA 매치플레이어를 개최한다.

LPGA 투어에서 매치플레이어가 열리는 것은 2017년 5월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어 이후 4년 만이다.

64명이 출전해 4인으로 구성된 16개 그룹으로 나누어 사흘동안 그룹 내에서 매치플레이어가 열린다. 각조의 1위 선수 16명은 싱글-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선에 진출한다.

LPGA 매치플레이어는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 2위 박인비(33), 3위 김세영(28)이 모두 출전한다.



고진영은 박인비와 연습 라운드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고진영은 "이 코스는 CJ컵이 열릴 때 TV로 봤었다. 워낙 코스 가 좋아 보여서 한 번 쳐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PGA 선수들이 좋아할만한 코스이고, LPGA 선수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코스에서 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매치플레이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진영과 박인비는 연습 라운드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 올렸다. 고진영은 "이 코스는 CJ컵이 열릴 때 TV로 봤었다. 워낙 코스 가 좋아 보여서 한 번 쳐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PGA 선수들이 좋아할만한 코스이고, LPGA 선수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코스에서 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매치플레이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히 하고 있다. 전략은 따로 없다.한 선수, 한 선수 눈앞에 보이는 선수를 이기면 결승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비 역시 경기를 즐길 것이라고 했다.

박인비는 "세도우 크리크는 너무 좋은 골프장이다. 라스베가스 가 집이기도 해서 몇 번 칠 기회가 있었다. 매치플레이어하기는 정말 좋은 골프장이고, TV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코스를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이다. 이번 주 선수들이 매치플레이어를 하면서 코스를 많이 즐길 것이다. US여자오픈 준비도 하면서 할 것이다"고 각오를 보였다.

매치플레이 방식에 대해 "매치플레이는 스트로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더 인성 있게 플레이를 해야 한다.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 상대 선수의 플레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경기이다 보니 최대한 내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양현종·박찬호·추신수 등 텍사스, 靑 출신 선수 조명

양현종(33)의 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조명했다.

텍사스는 26일(한국시간) 구단 트위터에 "이번달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유산을 계속 기념하고 있다. 우리 구단을 대표하는 아시아 태생 선수들도 주목하고 싶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첫 번째 사진에는 한국 광주 출신의 양현종과 일본 히로시마 태생의 아리하라 고헤이가 나란히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이전 텍사스를 대표했던 아시아 출신의 선수가 포함돼 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은퇴), 추신수(SSG 랜더스)도 빠지지 않았다.

구단은 한국 공주 출신의 박찬호가 2002~2005년 텍사스에서 뛰었다고 적었다. 한국 부산 출신의 추신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텍사스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에 몸담았던 일본인 선수들도 소개했다. 오쓰카 아키노리(2006~2007년), 다테야마 요시노



리(2011~2012년), 우에하라 고지(2011~2012년)를 비롯해 현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있는 다르빗슈 유도 이름을 올렸다. 다르빗슈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텍사스 유니폼을 입었다.

뉴시스

권창훈, 4년4개월 만에 수원 복귀

권창훈이 4년4개월의 유럽 생활을 마치고 K리그 수원 삼성으로 돌아왔다. 수원은 26일 권창훈의 복귀를 공식 발표했다.

수원 유스팀 매단고 출신의 권창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원 소속으로 109경기에서 나서 22골 9도움(K리그 90경기 18골 7도움, FA컵 6경기 1골 2도움, ACL 13경기 3골)을 기록했다.

수원 유스 최초 국가대표 발탁, 유럽 진출 1호 등의 기록을 남겼다. 2017년 1월 프랑스 1부리그 디종으로

이적한 권창훈은 독일 분데스리가 SC 프라이부르크를 거쳐 군입대 준비를 위해 수원으로 복귀했다.

A대표팀에 합류한 권창훈은 월드컵 예선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등번호는 기존의 '22'로 결정됐다.

권창훈은 "고향 같은 수원으로 돌아오게 돼 마음이 편하다"며 "매단고 후배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데, 선배로서 솔선수범해 팀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커리어하이' 손흥민, 케인 떠난다면 토트넘에 남을까



손흥민(29·토트넘)이 데뷔 후 최고 활약을 펼치며 2020~2021시즌을 마감했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최종 38라운드 경기에서 해리 케인과 공동 최다골을 기록하며 팀의 4-2 역전승에 기여했다.

최종전에서 승리를 맞은 토트넘은 18승 8무 12패(승점 62)로 7위를 차지했다. 아쉽게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대신 2021~2022시즌 신설되는 유로파 리그의 하위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에 나선다.

팀 성적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손흥민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한 시즌을 보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7골 10도움, 두 시즌 연속 10골-10도움을 달성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두 시즌 연속 10골-10도움은 토트넘 역사상 손흥민이 최초다. 리그 득점과 도움부분에서 모두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한 시즌 리그 17골은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넣은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과 타이이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22골 17

도움으로 무려 39개의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2019~2020시즌에 기록한 공격포인트 30개를 훌쩍 넘었다.

이제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가 비시즌 토트넘의 뜨거운 화두다.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없는 팀의 상황과 단짝 케인의 행보가 손흥민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4골을 합작한 케인이 사실상 올해 여름 팀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케인이 이적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손흥민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축 선수의 이탈은 남은 선수들의 집단 이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0년 프로 데뷔 후 단 한 차례도 우승과 연을 맺지 못한 손흥민 역시 보다 강한 팀, 높은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뉴시스

이적한 권창훈은 독일 분데스리가 SC 프라이부르크를 거쳐 군입대 준비를 위해 수원으로 복귀했다.